

대권주자 집중 분석

강점·약점 & 광주·전남과의 인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동대문 쇼핑몰 누촌 상가에서 옷을 입어보고 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3각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대선 정국이 뜨겁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형성된 민심의 흐름은 초반 대선 판세를 좌우할 전망이다. 정지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광주일보는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데 적합한 것인지 세 명의 유력 대선 주자들을 집중 해부해봤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담쟁이캠프 1차회의에서 시민캠프 공동대표들과 함께 '사람이 먼저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추석을 맞아 27일 여수에 있는 처가를 찾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칙·신뢰’ 중시 ‘불통 공주’ 비난

■ 박근혜
◇강점 = 박근혜 후보의 최대 강점은 '원칙과 신뢰'를 지킨다는 이미지다.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당 지도부 등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세종시 원안 추진을 고수하며 원칙을 강조해 왔고 지난 4·11 총선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약속과 신뢰'를 키워드로 삼아 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때문에 대중에게는 식언(食言)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굳혀졌다.
박 후보의 또 다른 강점은 지역적으로는

들이 많고 이는 곧 지뢰밭과 같아서 대선 기간 동안 박 후보를 괴롭힐 가능성이 크다. 또 박 후보에게는 아버지 '박정희'가 단점으로 작용한다. 최근 논란을 일으킨 5·16과 유신, 인혁당 발언의 여파는 이를 증명하며 '독재자의 딸'이라는 태생적 한계도 극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포용력과 융통성이 약한 '불통 공주'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난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경선들을 둘러싼 비박 주자들과의 갈등 과정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해 당내 경쟁자였던 정몽준·이재오 의원

‘노무현 그림자’ 득이나 독이나

■ 문재인
◇강점 = 문재인 후보의 최대 강점은 선하면서 성실하고 절제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친노(친노무현)'이면서 두터운 성격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보여준 덕분이다.
또 참여정부 내내 권력 실세였던 문 후보가 부패 관련 구설수에 한 번도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 도덕성도 문 후보의 장점으로 꼽힌다. 원칙과 상식을 강

망으로 기사화했던 친노가 지난 4월 총선을 거치며 민주당 내 최대세력으로 부상했던 노무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국민도 상당하다. 특히 민주당의 안방인 호남이 가진 '친노'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다.
여기에 '3철 또는 4철'로 일컬어지는 문 후보의 측근 그룹과 이해찬 대표 등 친노 핵심세력도 결정적 순간에 대권행보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실패도 문 후보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정책 실패와 한

‘변화·혁신’ 주역 ‘정치 신인’ 논란

■ 안철수
◇강점 = 안철수 후보의 최대 강점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근간한 '변화와 혁신'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정당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유권자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변화' 열망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면서 '안철수 현상'은 거품이 아닌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의사-컴퓨터 백신 프로그래머-기업 CEO-교수 등 과감한 도전을 바탕으로

을 뛰어넘는 통합적 리더십과 일처리, 보육, 교육, 주거, 노후 등 다양한 현안 과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화려한 스펙을 갖추고 있어 민생의 아픔을 제대로 공감할 수 있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책·공약·자질·도덕성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공세를 견딜 수 있는 맷집과 근성(권력의지)을 보여줄 것인지도 관건이다.
정당 현 실정 정치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무소속 후보라는 점도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실 정치를 감안하면 무소속 대통령

특별한 인연 없지만 지역 자주 찾아 애정 과시

영남, 이념적으로는 보수층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 출신인 박 후보는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과 경남 등에서 '문지마 지지'를 받고 있다. 또 보릿고개 극복과 압축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일컬어지는 아버지 '박정희' 향수를 바탕으로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충성도 높은 확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에서 퍼스트레이디 대행 역할을 했던 1970년대와 1998년 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쌓은 5선 의원의로서의 정치경험은 다른 후보가 갖지 못한 자산이다.
◇약점 = 공천현금 의혹 사건 등 측근들의 스캔들과 5·16과 인혁당 등에 대한 역사관 논란 등은 박 후보의 아킬레스건이다. 오랫동안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만큼 측근

이 경선 불참을 선언하게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왔기에 정권 심판론에서 비교적 자유롭기는 하지만 대선전이 본격화하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수장학회 문제나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 육영재단 비리 의혹 등도 박 후보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광주·전남과 박근혜 = 호남과의 특별한 인연은 발견할 수 없지만 박 후보는 지난 7월26일 대선후보 경선 광주연설회에서 "2004년 당 대표가 된 이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이 호남이었다고, 가장 많이 찾은 곳도 호남이었다"고 밝히면서 호남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표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 남평문씨...청와대시절 호남홀대 비판

조하고 특권과 반칙을 거부해온 문 후보의 이미지에 잘 부합된다.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 채 1년도 안 된 정치 신인이라는 점도 아이러니하게 강점으로 꼽힌다. 부정부패와 탐욕 등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문 후보의 최대 장점은 '노무현의 그림자'라는 별명이 나타내듯 '친노'의 정치적 자산을 모두 물려받은 적자라는 것이다. 35%의 고정지지층을 가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보다는 못하지만 유권자 중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친노' 지지층은 그의 최대 보물이다.
◇약점 = '노무현의 그림자'는 문 후보에게 장점이 동시에 약점이다. 한때 '폐족'의 위기까지 몰렸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

미FTA(자유무역협정) 추진, 양극화 심화와 청년실업 급증 등 민생 실패 등으로부터 문 후보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신인으로서 갖는 이미지는 장점이지만 이것은 대선 과정에서 약점으로 바뀔 수도 있다. 권력의지가 부족해 치열한 선거전을 견딜지에 대한 우려와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과 문재인 = 문 후보는 남평문씨다. 지난 8월21일 나주의 남평 문씨 문중 마을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 1978년 해남의 대흥사에서 처음 고시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청와대 근무 시절 호남 홀대의 중심에 있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경쟁에서 호남을 공략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가 처가...장인은 현재까지 농장 운영

한 성취, 무료 백신 보급과 주식 기부 등의 사회적 기여, 청춘 콘서트를 통한 소문 행보는 타 후보와는 차별화되는 그의 강점이다.
정치공학적으로 새누리당과의 대결 구도를 감안할 때, 안 후보는 중도층과 진보 진영의 지지를 확대하고 투표율이 낮은 젊은 세대의 참여 동력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안 후보가 야권 후보로 나설 경우, 과거와 미래, 보수와 혁신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약점 =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역량 문제가 논란거리다. 정치적 야마추어라는 프레임 극복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대선 주자로서 국정 운영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세대와 지역

은 안정감을 갖기 어려운데다 대선에서 승리한다 해도 그가 내세우고 있는 정치 개혁 등도 공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전남과 안철수 = 안 후보는 처가집이 전남이라는 점에서 '호남의 100년 손남'이라는 말을 듣는다.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여수 출신이다. 김 교수는 여수 동초등학교를 3학년까지 다녔다. 장인인 김우현씨는 농장을 가꾸며 아직까지 여수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선 출마 직전 국립5·18묘지를 참배했던 안 후보는 아직까지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안 후보가 호남의 정서를 끌어안지 못하고 결국 '손남'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리가족의 건강은 **휘나핫** 이 지킨다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다. '머리는 차게하고 하체는 따뜻하게'라는 한의학에서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 냉기가 따뜻하게 배출되기 때문에 몸속(체온)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이러한 원리를 응용한 휘나핫 반신욕기는 가정에서 쉽게 물없이(특히 획특제10-096707호) 발명의명칭:세라미전기 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 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 특별한 합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2020년까지). 사중에 유사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휘나핫을 확인하세요.

www.hkshop.co.kr
문의: 02-875-0600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나핫 건강 판매원 (주)휘나핫 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탄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070-7804-5358

체온조절팬티 ▶ 착용하는 순간바로! ▶ 30년의 역사와 전통!

100개국 특허, 서울 천년타임캡슐 수장품

생명공학의(biovital)팬티 착용 방법 및 효능

신형 팬티 내부도 | * 시중 유사품에 주의 하세요

(1)음낭분리밴드와 (2)둔부 분리대 속에 공기가 관통되는 (3)통기성구조물이 삽입되어 있으므로 둔부사이나 사타구니가 아무리 밀착되어도 그 속으로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대류 현상에 의하여 순환되므로 쾌적하다. (2)둔부분리대 속에 삽입되어 있는 (3)통기성 구조물은 둔부사이에 공기의 순환도 촉진시키고 전립선을 자극한다. 그리고 통기성 구조물은 체온의 균형을 유지에 도움을 주고 원적외선을 발산하는 수분분말과 향기를 혼합하여 제조했으므로 악취가 제거되고 향기를 발산한다. (4)의 음경 분리대는 음낭과 음경을 분리한다.

팬티를 구매하시는 모든분들께 '휘나핫 반신욕 삼백초 건강법' 책자 무료증정!

계좌번호: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02-875-0600

★ 휘나핫 족욕, 반신욕 이렇게 하자
휘나핫 반신욕기는 하루에 아침이나 저녁 본인 편한 시간에 1-2시간도 하는게 적당하다. 면까지 면티, 면양말 착용 후 휘나핫족욕을 준비한 후 한입과 따뜻한 한입(배우) 한 후 반신욕을 시작한다(30-40분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적당하게 온도상승 하세요). 반신욕을 한 후에는 바로 샤워를 하지 않고 일주일(2-3일)간 체온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다. 샤워를 하지 않더라도 땀이나 끈적거림이 없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거나 반신욕 이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더욱 좋다.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물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사용방법 : A와 B의 결합을 이용하여 구멍C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고 구멍의 사이즈는 사용자의 평소 음경 사이즈에 맞추고 소변시에는 음경을 삽입한 상태에서 양 옆으로 본다.